

# 친환경차 세계시장서 땡땡 달린다

## 자동차산업협회 '2015 판매동향'

지난해 전 세계 친환경차 시장규모가 전년보다 10% 성장해 총 234만대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친환경차 시장을 주도해 온 일본과 미국에서 판매가 줄고, 대신 전기차 보급이 늘고 있는 유럽과 중국 시장의 판매가 급성장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지난 6일 공개한 '2015년 전 세계 친환경 자동차 판매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전년보다 10% 늘어난 233만9858대가 판매됐다.

전세계 친환경차 판매는 2010년 95만 6621대, 2011년 97만2487대, 2012년 174만1309대, 2013년 198만6265대, 2014년 212만6188대로 해마다 늘고 있다.

차종별로 보면 지난해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주력 시장인 일본에서의 판매 감소와 저유가로 인한 미국의 판매부진으로 전년보다 8.9% 줄어든 161만대를 기록했다.

반면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수소전기차 포함)는 투입 모델의 증가와 보조금 확대로 전년보다 무려 104.2% 늘어난 73만대가 판매돼 전체 친환경차 판매를 견인했다.

각국의 친환경차 판매 현황을 보면 일본과 미국이 여전히 1, 2위를 차지했으나 전년보다 판매 대수가 나란히 줄었다.

일본의 친환경차 판매는 전년보다 9% 줄어든 89만4천대를 기록했다. 전세계 친

## ■메이커별 친환경차 판매대수

메이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토요타	530.110	690.370	629.210	1,219.940	1,280.500	1,287.000	1,204.500
혼다	151.800	186.200	197.300	231.555	265.174	279.871	260.138
르노/닛산	9.357	9.109	28.982	31.786	51.680	78.699	100.569
현대/기아	6.312	6.186	30.607	60.087	64.269	70.184	73.592
Ford	33.520	35.496	27.614	35.602	88.197	87.208	67.736
Tesla	160	1.350	650	2.740	25.000	32.000	50.000
미쓰비시	990	2.440	5.620	6.550	24.680	35.630	44.460
VW			800	900	8.250	12.500	41.900
BMW	654	2.145	607	5.576	7.072	19.058	32.000
GM	16.726	7.110	13.528	66.267	53.800	32.400	25.569
Others	7.359	16.215	37.569	80.306	117.643	191.638	439.394
합계	756.988	956.621	972.487	1,741,309	1,986.265	2,126.188	2,339.858

※Others에는 중국계 메이커 포함 <출처:FOURIN 세계자동차조사월보 '16.7, 일부 각사 보도 자료 및 추정값 포함>

## 지난해 10% 성장 234만대 판매 美·日 줄고 유럽·중국은 급성장 현대기아차 7만여대 팔려 4위

친환경차 판매의 절반을 차지했던 일본은 지난해 38%로 비중이 크게 줄었다.

미국도 지속적인 가솔린 가격 하락과 지엠의 전기차 볼트 등 주요 모델의 교체 주기로 인해 친환경차 판매가 전년보다 13% 줄어든 49만9000대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하는 유럽과 중국은 예년과 동일한 3, 4위를

유지했으나, 판매량이 급증해 미국 시장과 거의 맞먹는 규모로 성장했다. 지역별 판매 비중도 미국(21.4%), 유럽(18.0%), 중국(17.3%) 등으로 격차가 줄었다.

유럽은 독일 브랜드의 친환경차 제품 증가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지급 효과로 지난해 전년보다 47% 늘어난 42만대가 판매됐다.



기아자동차 친환경차 '니로'. <기아차 제공>

중국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과 구입세 면세 등 우대 정책, EV 카셰어링, 친환경버스 의무화 등을 판매해 전년 수준을 유지했고, 혼다가 약 26만대(11.1%)를 판매해 2위였다. 이어 약 40만4000대가 팔렸다. 이어 내수 시장의 규모가 작은 한국이 전세계 판매 비중 1.8%를 차지하며 친환경차 판매 5위에 올랐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총 4만1959대가 팔려 전년보다 17.1% 늘었다.

지난해 주요 메이커별 친환경차 판매 점유율을 보면 도요타가 약 120만대(51.5%)를 판매해 전년 수준을 유지했고, 혼다가 약 26만대(11.1%)를 판매해 2위였다. 이어 르노·닛산이 약 10만대(4.3%)로 3위였고, 현대기아차는 7만3000여대(3.1%)를 판매해 포드(2.9%)를 제치고 전년보다 한 계단 상승한 4위에 올랐다. 테슬라는 2014년 3만2000대에서 지난해 약 5만대(추정치, 2.1%)로 판매가 늘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와 각국 정부의 보급 정책, 주요 기업들의 개발 확대로 친환경차 판매가 늘고 있다”며 “정부 보조금 지급을 통한 보급 확대가 당분간 필수적이지만,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친환경차 시장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bigkim@연합뉴스

## 벤츠 지난달 6000대 판매 돌파

### 월간 최대 판매 실적 ... 연간 판매 1위 질주

메르세데스-벤츠가 지난달 수입차 사상 처음으로 6000대 판매 고지를 넘으며 연간 판매 1위를 향해 무섭게 질주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벤츠 코리아는 지난 10월 한 달간 국내에서 총 6400대 판매했다.

이는 한국자동차수입협회(KAIDA)가 판매대수 집계를 시작한 이래 월간 최대 판매실적이다. 수입차 시장점유율은 31.0%를 기록했다.

벤츠는 지난 9월 전년 동기(4329대)대비 15% 늘어난 5087대 판매하며 5000대 판매고지에 올라섰다. 또 8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수입차 시장점유율 30%를 돌파한 바 있다.

지난달 벤츠 판매 신기록은 7년 만에 내놓은 풀체인지(완전변경) 모델 '더 뉴 E-클래스' (사진)등 영향이 컸다.

더 뉴 E-클래스 가운데 'E300', 'E220d' 모델은 E-클래스 출시 이후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연속 베스트셀링카 1, 2위를 놓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BMW도 지난달 국내에서 총 5415대 판매하며 뒤를 쫓고 있다. 5시리즈 등 주력 차종 출시가 내년으로 미뤄지는 등 신차 라인업이 부족한 상황에서 거둔 실적으로는 놀랄 만한 수준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내년 신형 5시리즈 출시가 예고된 가운데 막판 판매 피치를 올리고 있는 BMW 520d 판매량이 늘어난 것이 BMW 10월 판매 호실적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BMW 520d는 지난달 1732대 팔리며 베스트셀링 1위를 되찾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디젤 게이트'로 호역을 치른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10월에도 조라한 판매실적을 거뒀다. 두 회사는 지난 9월 국내에서 각각 506대, 184대 판매하는 데 그쳤으며 10월에는 판매량이 이보다 더 줄어든 475대, 30대를 기록했다.

##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나온다

### 국토교통부 내년부터 ... 거울대신 카메라 설치 허용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측면에 카메라모니터시스템(CMS)을 설치한 경우 후사경(사이드미러)을 달지 않아도 된다.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은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해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옆면의 시계 범위를 확보하는 장치로 현재 상용화된 후방카메라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이드미러가 없는 차량이 처음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현재는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을 보조장치로만 활용 가능하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사이드미러를 아예 대체할 수

있다. 후사경을 카메라모니터시스템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국제기준은 이미 채택돼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안전기준을 이에 맞추고자 마련된 것이다.

사이드미러 대신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자동차의 바람 저항이 줄어 연비를 5~10% 절감하는 동시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비가 올 때 화면이 흐려지는 현상이나 기압 유류 가능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의 기술 개발 상황에 따라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업체들은 아직 기술 개발 중이

며 독일, 일본에서는 시스템을 시판 중이지만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김재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이 후사경을 대체하면 국내 제작사들의 첨단기술 개발이 활발해지고 자동차 디자인과 성능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따라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 적재량 관련 규제가 풀려 도로 밀집지역까지 골목배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전기 삼륜형 이륜차의 길이 기준을 2.5m에서 3.5m로, 최대 적재량 기준을 100kg에서 500kg으로 각각 완화했다.

이 차량은 매연과 소음이 없으면서도 부피가 작아 골목배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연합뉴스

적은만큼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 초대 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궁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 행복공인증개사

동구 중앙로 218번지  
고객만족, 책임중개  
대표 강인철 ☎062)225-3303

### 한마음정육식당

북구 용봉동 159-9 (북구청 전대후문)  
정육식당형 돼지고기전문점  
돼지(마리)(1kg) 37,000원, 돼지반마리(500g) 19,000원, 국내산생삼겹(250g) 12,000원  
대표 김진표 ☎062)261-8292

###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영점)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 바른글씨교정원

북구 서암대로 186 성지빌딩 3층 전담문서거리  
약필글씨 책임교정원, 학원생 수시모집  
교대, 사대, 임용반, 취업반, 감사반  
원장 직접 개인지도  
☎062)525-9933, 010-8703-3378

### 말바우2층 신발백화점

북구 동문대로 97번길8 2층  
말바우시장내 통일로약국 골목  
대표 임동일 ☎062)266-9737, 010-9432-3832

### 광주간호학원

동구 금남로 1가 19-1  
천하빌딩 4층, 전원 취업 알선  
국비 간호 조무사 모집, 일반 주·야간  
대표 윤상현 ☎062)222-5353

### 대풍쌀농산

북구 서방로 39번길 9-2 (중흥평화맨션입구)  
일반미, 찰쌀, 보리쌀, 현미, 서리태  
팥, 들깨, 녹두, 참깨 등 잡곡 도·소매  
대표 박경열 ☎062)267-0101, 010-3609-7117

###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 요식업친환경화구

관리하기 불편한 일체형화구  
가스다이에서 두껍이 분리되는  
친환경 화구로 교체  
대리점 하실분 환영. 유사품주의  
☎010-4607-1512

### 양지공인증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전병양 ☎062)263-2223

### 현대힐스테이트공인증개사

북구 각화동 224-1(2층)  
도박이가 운영하는  
토지 및 상가 전문 증개사무소  
☎062)511-1161, 010-7723-1201

### 으뜸공인증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 달수기사님식당

북구 우산동 206-7번지  
(무등도서관 우산공원옆)  
백반전문 기사님 식당(가격 5,000원)  
대표 유광중 ☎062)268-9255

### 한국기담명리철학학회

북구 우산동 205-18번지 근린공원옆  
개인단체 환영(강의내용: 사주, 음력,  
양력, 사주학, 수지학, 수축점, 이침)  
☎062)432-1324

### 고전방

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062)224-4869

### 박당화랑

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 석당화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예천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 K1밭데리

북구 두암동 미라보입구 사거리  
(각화주공아파트 중간지점)  
차량용, 산업용 축전지 도·소매 전문  
무로 출장서비스  
☎062)267-3935, 010-8893-3935

### 천수사백마장군

북구 중흥동 800-28 동부교육정보빌로  
인생상담, 병점, 사주, 궁합, 부적  
영어로 봅니다.  
대표 허길배 ☎010-2828-2008